

## 『채식주의자』의 한·중, 한·러 번역 전략 연구: 여성어를 중심으로

정미선(이화여자대학교)

김혜림(이화여자대학교)

### 1. 서론

소설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뒤 지금까지 총 31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이호재 등, 2024) 그동안 다양한 분야와 층위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번역학 분야에서는 영어에 치중된 연구가 주를 이룬 데다 대부분 번역의 오역 논란과 원작 왜곡이라는 비판적 담론 중심으로 다루졌다(이영훈, 2022, p. 109). 이처럼 영어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문학평론가이자 불문학자인 조재룡은 2017년 『문학동네』에 실린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라는 글에서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이영훈, 2022, p. 110) 한 영 불 세 언어쌍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채식주의자』의 프랑스어와 영어 번역본에 대한 온라인 독자평을 비교 분석한 연구(윤혜인, 2019), 고맥락과 저맥락 차원에서 『채식주의자』의 한중 번역과 한영 번역 양상을 비교한 연구(이아영과 최은실, 2023)가 등장하였다. 번역학 분야에서 두 개의 언어쌍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쌍을 다루면서 번역 양상과 전략을 살펴보는 시도와 연구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하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여성어의 중국어 및 러시아어 번역 양상 분석을 통하여 번역사가 목표 텍스트(TT: Target Text)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번역 전략(1)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유교 문화, 가부장제, 남존여비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전자는 표음문자이고 후자는 표의문자이므로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언어계가 완전히 다른 슬라브어파 러시아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는 여성어와 남성어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문법적 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순위 여자를 부를 때 남자는 ‘누나’로, 여자는 ‘언니’라고 칭하는 경우, 또는 여성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말괄량이, 단아하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에도 남녀 사이에 언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유경, 2012, p. 4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어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여성 대상어’ 연구 및 ‘여성 발화어’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상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2)

본 연구는 여성어의 중국어 번역과 러시아어 번역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5월 맨부커 국제상 수상에 이어 2024년 10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한국어 원본과 중국어 번역본 2권 및 러시아어 번역본 1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다. 본 연구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분석

- 
- 1) 번역 전략(translation strategies)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텍스트 번역에 접근하는 방식, 즉 번역문의 전반적인 지향(orientation)을 의미하고 번역 방법(translation techniques)은 학자에 따라 번역 절차(procedures)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역자가 텍스트를 번역할 때 미시적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技術) 기법(技法)을 의미한다(이상빈, 2023, p. 38; Munday et al., 2022/2023, pp. 47-48). 본 연구에서는 번역 방법뿐만 아니라 남녀 독자 간의 번역 차이, 문화나 언어 간 배경 차이, 사고방식과 심미적 가치, 이데올로기 등을 다루고 있어 ‘번역 기법’, ‘번역 방법’, ‘번역 절차’ 등의 용어보다는 ‘번역 전략’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한국 ‘여성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므로 명확하고 통일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민현식(1995)은 여성 대상어를 ‘여성에 대해서만 쓰이는 어휘’로, 여성 발화어는 ‘여성이 하는 말의 특징’이라고 정의하였다. 상세 내용은 2장 여성어에 대한 논의 참조.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소설이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한 주인공 ‘영혜’가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부장적 폭력에 저항하며 생존경쟁과 폭력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이야기, 즉 한 여성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여성어를 선별하는 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인물 호칭을 번역할 때 한국의 유교적 위계질서와 관계성의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 서양식 이름을 쓰지 않고 ‘처제의 남편’ 또는 ‘지우 어머니’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김정한, 2024)고 소개했듯이 여성어 호칭어와 지칭어에 반영된 한국 사회의 문화가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또한 한몫했다.

본 연구는 1장에서 연구 목적을 밝히고, 2장에서는 여성어를 중심으로 기존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한 후 여성어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여성 대상어의 중국어 TT와 러시아어 TT를 분석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 후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 2. 여성어에 대한 논의

### 2.1 왜 여성어 번역인가?

196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언어학이 1970년대에 들어 언어학의 한 분야로 인정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요인이 계층, 인종 등 문제와 함께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민현식, 1995, p. 6; 서진숙, 2010, p. 8).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여성어를 해석하려고 시도한 초기의 대표적인 논의로서 로빈 레이코프(Robin Lakoff, 1975/1991)의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민현식, 1995, p. 7). 로빈 레이코프(1975/1991, pp. 100-105)는 여성 언어의 9가지 특징으로 여성들만이 갖는 주된 관심사에 대한 표현, 무의미한 형용사의 사용, 평서문을 써도 되는 상황에서 의문문 억양의 사용, 애매한 어투의 사용, 강조 부사의 빈번한 사용, 문법의 엄격성을

따져가며 거친 표현 사용의 제한, 예절 바른 어법에 따른 공손한 방식의 표현, 농담이나 비속어 사용의 제한, 여성 특유의 독특한 억양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여성 발화어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는 “예”나 “-습니다”형을 많이 쓰고 여성은 “네”와 “-어요”형을 더 많이 쓴다는 김진우(1985/2017), 여성들이 주로 쓰는 언어 자료 대상으로 ‘간접적, 감정이입, 유표적’ 표현 특성을 고찰한 김선희(1991),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성선택적 차이, 즉 여성이 선호하는 언어와 남성이 선호하는 언어의 특성을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둔 이석규와 김선희(1992), 한국어에 나타나는 절대적 여성어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여성어의 언어적 특징을 주목한 임홍빈(1993), 여성 발화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을 재검토한 주지연(2008), 중국 연변지역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녀 발화어를 연구한 채춘옥(2009), 대중매체 언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에서의 성 스테레오타입의 표현을 연구한 홍선의(2014), 한국과 중국의 성별 발화 양상에 대하여 사회언어학적 접근 방법으로 대조 분석한 모이(2015), 제주도 방언을 중심으로 여성 발화를 연구한 김미진(2015)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젠더나 성별어와 관련된 번역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서유경, 2012, p. 43) 그동안 번역학 분야에서 성별어 및 젠더 관련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성원(2004)은 영화로 제작된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서 젠더의 의미가 한글 자막으로 번역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고, 김동미(2007, 2009, 2010)는 문학작품 영한번역문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를 분석하여 작품에 어울리는 번역 전략을 제시했다. 이해영(2006)은 한 일 두 언어의 젠더 표현을 비교 연구했고, 김순자(2007)는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 등장한 한 일 여성어 특징을 대조 분석하였으며, 장혜선(2010)은 일본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어의 한국어 번역 전략에 관해 연구하였고 서유경(2012)은 소설 『천둥소리』를 중심으로 여성어의 러시아어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김옥동(2012)은 ‘젠더 번역’의 관점에서 속담의 성차별을 연구했고 이상빈(2017)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수입 자동차 광고 번역과 젠더 번역을 탐구했다. 최근에는 소설 『채식주의자』의 여성어를 대상으로 영어 번역과 러시아

어 번역을 비교 분석한 김영신과 최병근(2023),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인간 번역과 기계번역의 성별어를 비교 연구한 조승연(2023), 대중 영화를 중심으로 영한 번역 자막에서 젠더차별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례를 연구한 김재민(2024) 등의 연구도 있다.

이상으로 성별어와 젠더의 번역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여성어 번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김순자(2007), 서유경(2012), 김영신과 최병근(2023), 조승연(2023)에 국한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언어 다양성 측면에서도 미미한 실정이다. 비록 최근 들어 한 러, 한 일, 한 중 등과 같은 언어쌍으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 중 러 세 언어로 성별어 번역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역본 중심의 번역 담론을 세 언어의 번역본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서유경(2012)은 ‘출가외인’, ‘무 다리’, ‘댕기’ 등과 같은 여성 대상어류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이 부분이 바로 본 연구가 여성어 번역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여성어에는 한국의 가족 호칭 체계, 유교적 가부장제 하의 여성 인식, 의식주 등 전통 생활양식, 역사, 관습, 규범 등의 고유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즉, 여성어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여성이 하는 말’을 넘어 해당 언어권 사회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언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서유경, 2012, p. 42).

이처럼 특정한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여성어를 다른 도착어(TL: Target Language)로 번역할 때 출발어의 의미를 온전히 보존하는 등가어 표현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설령 찾았다고 해도 도착어 문화권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용어<sup>3)</sup>

---

3) 김혜림 등(2014)이 수행한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는 이론적 연구 및 선행연구 조사 중심의 정성적 연구와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용어 선별 분류 중심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문화용어’를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로 정의하였다. 김혜림(2019, p. 86)에서는 “문화소를 포함하여 단어, 어휘로부터 속담에 등장하는 문화 특정적 요소 단위를 ‘문화용어’로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문화소, 문화적인 용어, 문화단어, 문화어휘, 음식명, 문화제명, 문화

에 속하는 여성어를 번역하는 작업은 단순한 언어 치환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채식주의자』의 한 중, 한 러 번역본을 분석하기에 앞서 여성어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2.2 여성어 정의 및 분류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서진숙(2010)의 논문은 한국어 여성어의 변천사를 자세하게 고찰한 논문으로 1960년대부터 여성어 정의와 특징을 다룬 여러 대표적인 연구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서진숙은 총 13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는데 여성어의 정의는 크게 ‘여성에 대한 말’과 ‘여성이 하는 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상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므로 그 분류 결과 중에서 (절대)남성어, 여성 발화어, 속담, 속언, 통성어(通性語) 등을 제외한 여성어의 정의만 모아 <표 1>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표 1

여성어에 대한 정의(서진숙, 2010, pp. 15-16 참고)

연구자	용어 및 기준	예시
유창돈(1966)	일반 여성어	아낙, 여자
	족칭(族稱) 여성어	딸, 아내, 어머니
	특수 여성어	과부, 처녀, 홀어미
서정범(1969)	여성 지칭어	아기씨, 어미
김진우(1985/2017) <sup>4)</sup>	여성 명사	여교수, 여사장, 여변호사
이석규와 김선희(1992)	여성 지칭어(성차별)	년놈, 에미에비(부정형 어순)
		남녀문제, 소년소녀(어순 문제)

관련 어휘, 문화 특정적 요소, 문화특정어, 관광문화용어,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 문화계 분야 전문용어, 문화적 요소를 지닌 어휘, 문화고유어를 모두 ‘문화용어’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 여성어 또한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하는 언어적 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문화 관련 용어를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김혜림의 ‘문화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4) 김진우가 1985년에 출판한 『언어: 그 이론과 응용』은 2017년에 출판사를 바꿔 제

		자식, 형제(의미 포함)
구현정(1995)	여성 중심어	창, 첩
	여성 전용어	여급, 여권신장
민현식(1995)	여성 관련어	강강술래, 빠리
	여성 묘사어	얌전하다, 정숙하다
	여성 지칭어	어머니, 미인, 해녀
박창원(1999)	성차별 의식이 반영된 여성 대상어로서의 여성 차별어	가정부, 미인

앞에서도 밝혔듯이 ‘여성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므로 통일된 개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연구 중에서도 민현식(1995)의 연구가 여성어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뤘을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여러 개념과 예시도 제시하고 있어 여성어의 번역 양상과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현식의 여성 대상어 분류 틀을 적용하려고 한다.

표 2

여성 대상어 분류(민현식, 1995, p. 51 참고)

여성 대상어		
여성 지칭어	성명 지칭어	김씨댁, 과천댁, 황진이
	일반 지칭어	고명딸, 고모, 아가씨, 아내, 여자,
	외모성 지칭어	미인, 미녀, 박색, 추녀, 호박
	직업성 지칭어	가정부, 미용사, 여직원, 파출부
	품행성 지칭어	말괄량이, 불여우, 여장부, 요조숙녀
여성 관련어	가사 관련어	길쌈, 마른일, 육아, 진일
	결혼 관련어	소박맞다, 시집가다, 시집살이
	놀이 관련어	강강술래, 고무줄놀이, 그네뛰기
	생애 관련어	과년하다, 묘령, 방년, 몸맡기다
	용품 관련어	댕기, 분홍신, 비녀, 소복, 화장품

	출산 관련어		낳다, 달이 차다, 임신, 태기, 해산
여성 묘사어	성품 묘사어	긍정 성품어	섬세하다, 참하다, 청순하다
		부정 성품어	내숭, 앙큼, 토라지다, 히스테리
	외모 묘사어	부분 외모어	각선미, 딸다, 몸매, 아미, 쪽지다
		전체 외모어	곱다, 아름답다, 예쁘다, 요염하다
	행동 묘사어	긍정 행동어	다소곳하다, 얌전하다, 정숙하다
		부정 행동어	교태, 방정맞다, 수다스럽다, 아양

본 연구에서는 여성 발화어<sup>5)</sup>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제외하고 여성 대상으로만 분석 범위를 한정한다. 이어 3장에서는 여성어의 번역 전략을 여성 지칭어, 여성 관련어 및 여성 묘사어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 3. 여성어의 번역 전략 분석

여성어의 중국어 번역과 러시아어 번역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24년 10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중국어 번역본 두 권과 러시아어 번역본 한 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다.

중국어 번역본을 조사한 결과 모두 네 권을 찾을 수 있었는데 두 권은 간체자 버전(2013년, 2021년)이고 나머지 두 권은 번체자 버전(2016년, 2023

5) 민현식(1995, pp. 57-58)은 여성 발화어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음운적 특성(상승 억양, 표준어 지향성), 둘째, 문법적 특성(의문문의 과다 사용, 두루높임의 해약제), 셋째, 어휘적 특성(감탄사 및 부사의 적극 사용, 욕설과 금기어의 소극 사용, 관심어의 차이), 넷째, 화용적 특성(다양성, 협동의 대화, 맞장구 치기, 애매(曖昧) 어법, 찬사(讚辭), 공손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원(2012, p. 5)에 따르면 여성 발화어의 특성 중 음운적 특성은 번역 텍스트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다른 특성들은 번역 텍스트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필자는 발화와 관련된 번역은 아무리 동일한 원문 텍스트(ST: Source Text)라고 해도 번역가의 성별, 나라별 문화적 차이 또는 출판 의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성 대상어에 비해 복잡하므로 단순하게 ST와 TT를 놓고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년)이었다. 러시아어 번역본의 경우 한 가지 버전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sup>6)</sup> 중국어 번역본 중 2013년 간체자 버전 및 2016년 번체자 버전의 역자와 2021년 간체자 버전 및 2023년 번체자 버전의 역자가 각각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번체자 버전 두 권을 제외하기로 했다. 『채식주의자』의 중국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채식주의자』 중·러 번역본

차 례	책 제목	출판사	역자	성별	출판연도
1	素食主义者	重庆出版社	千日	남	2013
2	素食者	四川文艺出版社	胡椒筒	여	2021
3	Вегетарианка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이상윤	여	2018



TT1(2013년)



TT2(2021년)



TT3(2018년)

한국어 원문 텍스트는 ST로, 중국어 텍스트는 TT1(2013년 버전)과 TT2(2021년 버전)로, 러시아어 텍스트는 TT3(2018년 버전)으로 표기한다.

### 3.1 여성 지칭어

『채식주의자』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여성 지칭어는 <표 4>와 같다.

6) 중국어 번역본의 경우, 남여 번역가가 번역한 간체자 및 번체자 버전이 모두 출판되어 분석 대상의 데이터가 러시아어에 비해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어의 경우 현재 한가지 버전만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번역본 선정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표 4  
『채식주의자』의 여성 지칭어

여성 지칭어	일반 지칭어	따님, 부인, 아내, 여자, 장모, 집사람, 처제, 처형
	외모성 지칭어	미인
	직업성 지칭어	무용수기, 여고생, 여직원, 파출부, 창녀
	기타	그녀, 자식, 형제, 종군위안부

상술한 여성 지칭어 가운데 아래의 구체적인 번역 예시를 통해 번역 전략은 어떠한지, 원문의 의미는 제대로 살려졌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예문 1>

ST: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p. 9)

TT1: 在老婆还没开始吃素食之前, 我从来没有想过她身上会有什么特别之处。 (p. 4)

TT2: 妻子吃素以前, 我没有觉得她是一个特别的人。 (p. 2)

TT3: Пока жена не стала вегетарианкой, мне и в голову не приходило, что она какая-то особенная. (p. 7)

<예문 2>

ST: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p. 32)

TT1: “我夫人一直患有肠胃疾病。” (p. 28)

TT2: “我太太一直患有肠胃病。” (p. 22)

TT3: - Жена долгое время страдала болезнью желудка. (p. 42)

<예문 3>

ST: 사장 부인이 화사한 사교적 톤으로 아내를 염려했다. 아내는 웃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은 채 대답 없이 그 여자의 우아한 얼굴을 마주보았다. (p. 33)

TT1: 社长夫人用形式化的社交语调问候老婆。老婆没有笑, 没有脸红, 也没有丝毫迟疑, 只是默不作声地注视着这个女人优雅的妆容。 (p. 29)

7) 민현식(1995, p. 23)은 ‘댄서’도 원래 남녀를 다 가리키지만, 한국어에서는 여성어로 쓰이고 ‘무용수’는 남자도 가능하지만, 흔히 여성 무용수를 연상한다고 하였다.

TT2: 社长夫人用花哨的社交口吻问候了妻子。但妻子没有作答, 她只是面无表情地默默注视着那个女人优雅的脸庞。(p. 23)

TT3: Так супруга директора великолепно поставленным голосом выразила беспокойство. Жена в ответ не улыбнулась, не покраснела, не растерялась, а только молча посмотрела прямо в ухоженное лицо этой благородной дамы. (p. 45)

한국어에는 아내<sup>8)</sup>와 뜻이 비슷하거나 연관된 단어가 많은 편이다. 아내의 유의어로는 마누라, 부인, 안사람, 집사람, 처 등이 있다. 먼저 마누라는 ‘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또는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안사람은 ‘아내를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이르는 말’이고 집사람은 ‘남에 대하여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라면서는 봉건시대에 ‘벼슬이 없는 남편의 아내를 부르는 가장 낮은 호칭’이다 (이재운, 2021).

<예문 1>에서 먼저 중국어 번역문을 보면, 한국어 원문의 ‘아내’라는 단어는 TT1과 TT2에서 각각 ‘老婆’와 ‘妻子’로 번역되었다. 중국에서 지역, 연령, 신분, 상황, 장소 및 시기에 따라 ‘아내’를 지칭하는 어휘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老婆’와 ‘妻子’ 외에도 ‘媳妇’, ‘爱人’, ‘太太’, ‘夫人’, ‘老伴儿’, ‘孩子他妈’, ‘内人’ 등이 있다. ‘老婆’와 ‘妻子’는 오늘날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지역별 문화적 전통과 언어적 습관에 따라 사용 빈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문 2>에서 한국어 원문의 ‘집사람’이라는 표현은 중국어 TT1에서는 ‘夫人’으로, TT2에서는 ‘太太’로 번역되었다. ‘夫人’은 일반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많이 쓰이는 호칭인데 때로는 자기 아내를 남 앞에서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TT2의 ‘太太’도 ‘夫人’과 마찬가지로 ‘아내, 부인, 여자’ 등을 뜻하나 ‘太太’는 기혼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앞에 남편의 성씨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배우자’를 무난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아내는 ‘혼인하여 남자의 배우자가 된 여자’를 뜻한다. 마누라, 부인, 안사람, 안식구, 집사람 등의 뜻풀이도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였다.

하게 지칭할 수 있는 ‘爱人’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예문 2>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에서 ‘夫人’은 보통 공식 석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부인, 여사’ 등의 뜻을 지닌다. <예문 3>에서도 TT1과 TT2 모두 ‘社长夫人’으로 올바르게 번역되었다. 종합해 보면, 중국어 역자는 사전에 제시되었거나 기존에 자주 사용되었던 등가어 중에서 알맞은 대응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기존 등가어(established equivalent)’를 활용하는 번역 전략을 구사하였다.

러시아어의 경우, <예문 1>과 <예문 2>에서 ‘아내’는 모두 일반 어휘인 ‘жена’로 번역되었으므로 ‘일반화(generalization)’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러시아어에도 ‘집’과 ‘부인’을 결합한 의미적 합성어 ‘домохозяйка’라는 어휘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의 ‘домохозяйка’는 ‘농가의 여주인, 가정주부, 전업주부, 살림꾼’이라는 뜻으로 한국어의 ‘주부(主婦)’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문의 ‘집사람’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어의 경우 ‘집사람’은 자기 아내를 남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 부르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어의 다양한 여성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가 애를 먹거나 등가로 번역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따라서 한국 여성어의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의미 전달을 위한 ‘첨가(addition)’, 원문의 특수한 용어를 일반 용어로 교체하는 ‘일반화’ 또는 관점을 달리하여 번역하는 ‘변조(modulation)’ 등 적절한 번역 전략이 요구된다.

<예문 3>에서는 ‘사장 부인’의 경우 ‘супруга директора’로 번역한 후, 사장 부인을 가리키는 지칭어 ‘그 여자’는 직역하는 대신 ‘차용(borrowing)’ 전략을 활용하여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용어 ‘다마’로 번역함으로써 ‘상류층 부인, 귀부인, 숙녀, 마담’과 같은 존칭의 뉘앙스를 나타내려고 했다. 다만 ‘배우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супруга’는 현재 행정용어로 많이 사용(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노한사전)된다고 하니 특정 분야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어휘를 활용하는 ‘특정화(particularization)’ 전략보다 일반화 전략을 구사해 일반 용어인 ‘жена(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문 4>

ST: 예쁘다거나, 총명하다거나, 눈에 띄게 요염하다거나, 부유한 집안의

따님이라거나 하는 여자들은 애초부터 나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p. 10)

TT1: 那些被冠以美丽可爱、聪明伶俐、性感妖艳、豪门公主等字眼的女孩子们, 在我的心目中, 一直都是不合适的。(p. 4)

TT2: 从一开始, 那些用漂亮、聪明、妖艳和富家千金来形容的女子, 只会让我感到不自在。(p. 3)

TT3: Те, кого называли красивыми, или умными, или вызывающе сексапильными, или дочери богатого папеньки,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ставлялись мне существами, с кем не оберешься хлопот, не более того. (p. 9)

한국어에서 상대방의 딸을 높여 부르는 ‘따님’의 경우,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등가어가 부재하다.

중국어에도 남의 집 딸을 가리키는 지칭어로 ‘שמ爱(영애), 小姐(아가씨), 闺女(규수), 千金(따님)’ 등의 용어가 존재하나 현대 소설 작품에서 한국어의 어휘나 품사 또는 수식 구조를 그대로 중국어로 옮길 경우, 중국 독자가 번역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무리가 있다. 이럴 경우, 중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 장치, 즉 ‘사자구(四字格)’<sup>9)</sup>를 활용한 번역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용하다.

2011년 언어학 명사로 공식 인정된 사자구는 네 개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 또는 구를 뜻하며 4음절 단순어, 합성어, 성어, 고정 어구 등을 포함한다(바이두 백과사전). 중국어에는 짝수로 이루어진 어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4음절은 중국어 화자가 매우 선호하는 언어형식이다. 이처럼 사자구가 학술적인 용어로 인정받음과 더불어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취할 수 있는 유용한 번역 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인들의 “以偶为佳, 四言为正(짝을 이루어야 아름답고 너 자를 이루어야 바람직하다)”이라는 미적 기준과 “四字为稳, 方正为固(네 자로 구성되어야 안정적이고 네모를 이루어야 탄탄하다)”(왕원빈과 가오징(王文斌과 高静), 2019, p. 4)라는 사고방

9) 중국어의 ‘四字格’를 독음 그대로 차용하면 ‘사자격’인데 본 연구에서는 ‘사자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현주(2020)에 따르면 ‘四字格’는 네 개의 글자로 구성된 그 ‘구조’에 핵심을 두고 있으므로 ‘사자격’보다는 ‘사자구’라고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어 두 번역문은 모두 ‘부유한 집안의 따님’을 하나의 표현으로 보고 ‘豪门公主(부잣집 공주)’와 ‘富家千金(부잣집 금지옥엽)’이라는 사자구로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 독자들에게 한국어 원문의 뜻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어에도 ‘따님’을 지칭하는 대응어로 ‘барышня’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양(令嬢)’, ‘아가씨’, ‘귀족집의 딸’, ‘여지배자의 딸’, ‘마님의 딸’ 등 다양한 사전적 의미<sup>10)</sup>를 지니며 모두 옛날식 표현에 해당한다. 필자가 첸이즈바(千億詞霸) 러-중 온라인 사전을 살펴보니 ‘барышня’가 ‘응석받이로 자란 딸(娇女)’, ‘일하기 싫어하는 여자(不爱劳动的女子)’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어 사전에 등재된 어휘 ‘барышня’를 한국어 ‘따님’의 등가어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역자는 ‘따님’이라는 존칭어를 대신할 대체어로 일반 지칭어 ‘딸(дочь)’을 선택하였고, 단수 형태의 ‘дочь’를 복수 형태인 ‘дочери’로 처리한 것은 존칭어 대체어로 일반화 전략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역자는 ‘부유한 집안의 따님’을 ‘дочери богатого папеньки(부자 아빠를 둔 딸)’로 번역하였는데 한국어 원문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분명 ‘дочери богатых родителей(부자 부모를 둔 딸)’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부자 아빠’만 강조한 번역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은 여전히 아버지의 몫이라면, 어머니는 집안일과 육아가 주요 역할로 부여된다는 가부장적인 심리를 피력하기 위한 역자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sup>11)</sup>

<예문 5>

ST: 소도시에서 목재소와 구멍가게를 하는 장인장모, 사람 좋은 처형과 처남 부부를 보더라도 정신적 일탈의 혈통 같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고. (p. 25)

10) 한국어 뜻풀이는 문예림에서 출판한 최신 한국어-러시아어 사전과 고려대학교 러시아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 러시아어-한국어 사전을 참고하였다.

11) 러시아에서는 남성의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자 아빠를 둔 딸’로 번역한 것이 오히려 ‘부유한 집안’, ‘부잣집에서 태어난 출생 환경’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TT1: 在小镇经营木材加工厂的岳父岳母、为人和善的姨姐和小舅子，他们谁也不像是有精神疾病的样子。(p. 21)

TT2: 在小城镇经营木材厂和小商店的岳父岳母、为人善良的大姨姐和小舅子一家人，谁都不像是有精神疾病的人。(p. 16)

TT3: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моего тестя - он живет в маленьком городке, где держит лесопилку и продуктовую лавку, а также не его старшую дочь и сына, людей с хорошим характером, то ниогдпа не придет в голову, что в их роду у кого-то может быть психическое отклонение. (p. 32)

<예문 6>

ST: 아내와 닮았지만 아내보다 눈이 커서 예쁜, 무엇보다 아내보다 여자다운 데가 있는 처형이 곧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pp. 33-34)

TT1: 姨姐与老婆长得很相似，但是眼睛却又大又漂亮，而且无论从哪一方面来说都比老婆更有女人味。(p. 29)

TT2: 大姨姐跟妻子长得很像，但她的眼睛更大、更漂亮，重点是，她比妻子更有女人味。(p. 25)

TT3: Внешне сестры похожи, но у старшей глаза больше, поэтому она кажется симпатичнее, и к тому же ей не занимать женственности. (p. 48)

<예문 7>

ST: 처형이 결혼 전부터 운영해 온 화장품가게의 수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였다. (p. 44)

TT1: 这是大姨姐用结婚前就开始经营的化妆品店挣到的钱买的公寓。(p. 40)

TT2: 大姨姐从结婚前开始经营化妆品店，这套公寓完全是靠她的收入买下的。(p. 25)

TT3: Эту квартиру сестра моей жены приобрела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 (p. 63)

<예문 5>부터 <예문 7>에는 모두 ‘처형’이라는 여성어가 등장한다. 한국어에서 ‘처형’이라는 단어는 아내의 언니를 이르는 말로 지칭어이자 호칭어이다. 중국어에도 ‘妻姐’, ‘姨姐’, ‘大姨姐’ 등의 대응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등가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략으로 큰 어려움 없이 번역할 수 있다. 다만, <예문 5>부터 <예문 7>에서 TT2는 ‘처형’을 일관되게 ‘大姨子’라고 번역했지만, TT1은 ‘姨姐’ 또는 ‘大姨子’를 혼용하여 번역했다. 사전적으로는 모두 올바른 번역이지만 가령 등장인물이 많은 소설 작품일 경우 인물 지칭어를 통일하지 않는다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 ‘처형’의 사전적 러시아어 뜻풀이는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жены’ 또는 ‘старшая свояченица’로 영어의 ‘wife’s older sister’에 가깝다. 하지만 러시아어 번역문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예문 5>에서 ‘처형’은 ‘장인의 큰 딸’이라는 의미로 ‘старшая дочь’라고 번역되었는데 이는 변조 전략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처형’의 사전적 번역은 ‘처(妻)’에 초점을 두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역자는 ‘장인’을 기준으로 두고 다른 관점에서 번역했기 때문이다. 인물 지칭어를 번역할 때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 전달이 어려울 때 관점과 기준 등을 달리하여 번역하는 변조 전략을 사용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문 6>에서는 ‘처형’을 ‘старшая’로, <예문 7>에서는 ‘сестра жены’로 번역했는데 전자는 문맥을 통해 ‘처형’임을 알 수 있지만 후자는 형용사 ‘старшая(연장자의, 연상의, 나이가 더 많은)’가 빠진 관계로 아내의 누이 가운데 처제와 처형의 차이가 명확하게 번역되지 못했다.

종합해 볼 때, 한국어는 한 단어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세 단어를 사용해야 ‘처형’의 완전하고 정확한 의미적 등가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단어를 모두 사용하면 러시아어 번역문이 지나치게 길어지기 때문에 역자는 이에 대한 차선택으로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만 사용하는 ‘담화맥락에 맞는 창조(discursive creation)’<sup>12)</sup>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번역 전략은 때에 따라 의미 전달에 성공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맥락 정보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예문 8>

ST: 밥을 차려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누이, 혹은 과출부 같은 존재로서

12) 이상빈(2023, p. 39)은 ‘담화맥락에 맞는 창조’를 “원문의 맥락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시적인 등가어를 활용한다”라고 정의한다.

라도. (p. 39)

TT1: 只当是个能为你做饭、打扫房间的姐姐或钟点工。(p. 36)

TT2: 看成为我洗衣煮饭、打扫房间的姐姐, 或是保姆也不错。(p. 29)

TT3: Как со старшей сестрой, которая готовит, накрывает на стол, убирает квартиру, или даже как с приходящей домработницей. (p. 55)

중국어 번역문에서 ‘파출부(보수를 받고 출퇴근하며 집안일을 해주는 여자)’는 각각 ‘钟点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자)’과 ‘保姆(가사도우미, 가정부, 보모, 파출부)’로 번역되었다. 사전적 의미로 TT2의 ‘保姆’와 비교했을 때 TT1의 ‘钟点工’은 ‘집안일을 하는 여자’라는 뉘앙스는 사라지고 남녀 구분 없이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나 실제로 TT2의 ‘保姆’는 입주 가사도우미를 지칭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TT1의 ‘钟点工’은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시간제 가사도우미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원문의 함축적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어의 경우 ‘приходящая домработница(통근하는 가정부, 출퇴근하는 가사도우미)’로 번역되어 한국어 원문의 ‘파출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번역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어와 러시아어 번역 결과물 모두 기존 등가어를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예문 9>

ST: 그럴 때 아내는 마치 자신이 끌려온 중군위안부라도 되는 듯 멍한 얼굴로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p. 40)

TT1: 此时的老婆像是一个强行拉来的从军慰安妇一样躺在那里, 在黑暗中面无表情地盯着天花板。(p. 36)

TT2: 此时的妻子 **【 〇 】** 面无表情地躺在黑暗中凝视着天花板。(p. 29)

TT3: В такие минуты жена словно превращалась в одну из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утешительниц - сексуальных рабынь, которые обслуживали 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и лежала с застывшим лицом, уставившись в темный потолок. (pp. 55-56)

원문 텍스트의 ‘중군위안부’라는 단어는 중국어 두 번역문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번역문에서도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TT1은 ‘중군위안부’라는 단어를 그대로 ‘从军慰安妇’로 직역했지만, TT2에서는 ‘중군위안부’를 아예 삭제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를 ‘慰安妇’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직역해도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 TT1의 역자는 남성인 데 반해 TT2의 역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중군위안부’의 삭제 원인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본다.

러시아어 번역문의 경우 원문에서 한 단어로 구성된 ‘중군위안부’를 ‘확대(amplification)’와 ‘기술(description)’<sup>13)</sup>이라는 번역 전략을 사용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성노예로 종사한 위안부’라고 풀어서 설명하였다. 사실 러시아어에는 ‘위안부’의 영어 표현 ‘Comfort Women’과 1대 1로 대응되는 ‘женщины для утешения’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언론 매체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2015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마지막 위안부(The Last Comfort Women)’의 제목도 러시아어에서는 ‘Последняя женщина для утешения’로 번역되었다. 『채식주의자』의 러시아어 번역문에서 번역가 이상윤<sup>14)</sup>은 의도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확대 전략을 통해 ‘위안부’의 형태적 등가성보다는 동태적 등가성과 효과의 등가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문 10>

ST: 처가가 멀어, 서울의 처갓집 형제들은 선물을 부치고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장모의 생일을 넘기곤 했다. (p. 40)

13) 이상빈(2023, p. 38)에서 ‘확대’는 ‘원문에 없는 세부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고 ‘기술’은 ‘원문의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풀어서 기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14) 1959년 러시아 사할린에서 태어난 이상윤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게르첸 사범대학교 동양어학부에서 현대 한국문학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를 맡았다. 36세가 되던 1995년에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쌓은 후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김언수의 『설계자들』을 비롯해 박완서, 윤세중, 은희경 등의 작품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 김환과 함께 번역한 천명관의 『고래』는 2019년 12월 제17회 한국문학번역상을 받았다.

TT1: 因为娘家太远, 住在首尔的娘家兄妹们一般仅寄去礼物或打电话为岳母祝寿。(p. 35)

TT2: 由于二老住得远, 所以每年住在首尔的子女都是寄些礼物, 然后再打电话为他们贺寿。(p. 28)

TT3: Дом родителей далеко, поэтому живущие в столице дети поздравляли мать по телефону и отправляли подарки по почте. (p. 54)

<예문 11>

ST: 평소애 장모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둘째 딸이지만, 자식은 자식인 모양이었다. (p. 35)

TT1: 虽然岳母平时显得并不怎么关心二女儿, 但毕竟是自己的亲生骨肉。(p. 31)

TT2: 虽然她平时看起来并不怎么关心二女儿, 但毕竟妻子也是她的亲骨肉。(p. 28)

TT3: Жена была ее второй дочерью, и я раньше не замечал, чтобы она особо заботилась о ней, но, должно быть, ребенок есть ребенок, никуда не денешься. (p. 47)

이석규와 김선희(1992, pp. 2-3)는 ‘남존여비’ 차별의 잔재로 ‘형제’, ‘자식’과 같은 어휘를 예로 들었는데, 그 이유는 남성만을 지칭하는 두 어휘에 ‘여성’의 의미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식’과 ‘형제’ 두 어휘가 중국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다.

중국어의 경우, <예문 10>에서 등장한 ‘형제’를 TT1에서는 ‘兄妹(오누이)’로, TT2에서는 ‘子女(자녀)’로 번역하여 한국어의 ‘형제’와 달리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어휘로 표현하였다. <예문 11>에서는 한국어 ‘자식’을 TT1과 TT2에서 모두 ‘亲生骨肉, 亲骨肉(살붙이, 피붙이, 골육, 육친, 혈육)’로 번역하여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어도 중국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형제’와 ‘자식’을 모두 ‘дети(자녀/아이들(복수형))’과 ‘ребенок(자녀/아이(단수형))’로 번역하였다.

이 두 번역 결과를 놓고 ‘남녀문제’, ‘소년소녀’처럼 여성보다 남성이 먼저 언급되는 성차별적 어순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와는 달리 중국어와 러시아어 번역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가리키는 어휘를 선택

하여 ‘남존여비’ 차별의 의미를 희석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3.2 여성 관련어

『채식주의자』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여성 관련어는 <표 5>와 같다.

표 5  
『채식주의자』의 여성 관련어

여성 관련어	가사 관련어	뒷바라지, 살림
	결혼 관련어	결혼, 처가(처갓집), 친정(식구)
	생애 관련어	사춘기소녀, 처녀시절, 중년 여자
	용품 관련어	브래지어
	출산 관련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만삭, 임신

본 절에서는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여성 관련어의 몇몇 예문을 통해 번역 전략을 분석하기로 한다.

<예문 12>

ST: 처녀시절부터 해운 아르바이트로 적으나마 가게에 보탬도 되었다.  
(p. 10)

TT1: 她还做着出阁之前就开始的兼职工作, 或多或少地补贴家计。(p. 4)

TT2: 她从婚前一直做的副业也或多或少地贴补了家用。(p. 3)

TT3: имея отыт подработки еще со студенческих лет, вносила свою лепту в наш семейный бюджет. (p. 9)

한국어 원문의 ‘처녀시절’은 중국어 번역문에서 각각 ‘出阁之前(출가하기 전, 시집가기 전)’과 ‘婚前(결혼하기 전)’으로 번역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여자’를 의미하는데 중국어에도 유의어로 ‘姑娘(아가씨, 처녀)’, ‘闺女(처녀, 딸)’, ‘小姐(아가씨, 아가씨)’, ‘未婚女子(미혼녀)’ 등 여러 어휘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어 역자 모두 1대1 대응어를 선택하는 대신, 담화맥락에 맞는 일시적인 등가어로 ‘결혼하기 전,

시집가기 전’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치녀시절’을 완곡하게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어 번역의 경우, 러시아어에도 ‘치녀시절’을 뜻하는 대응어 ‘девичество’가 존재하지만, 역자가 ‘со студенческих лет(대학생 시절부터)’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시기와 치녀시절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체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치녀’라는 뉘앙스를 의도적으로 지운 것으로 분석된다.

<예문 13>

ST: 처가가 멀어, 서울의 처갓집 형제들은 선물을 부치고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장모의 생일을 넘기곤 했다. (pp. 38-39)

TT1: 因为娘家太远, 住在首尔的娘家姐妹们一般仅寄去礼物或打电话为岳母祝寿. (p. 35)

TT2: 由于二老住得远, 所以每年住在首尔的【O】子女都是寄些礼物, 然后再打电话为他们贺寿. (p. 28)

TT3: Дом родителей далеко, поэтому живущие в столице дети поздравляли мать по телефону и отправляли подарки по почте. (p. 54)

한국어에서 ‘처가, 처갓집’은 ‘아내의 본가’를 의미한다. 중국어 번역본을 먼저 살펴보면 TT1에서는 ‘娘家(친정)’로 오역 없이 번역했지만, TT2에서는 ‘처가’를 사전적 등가어로 번역하는 대신 ‘二老(두 어르신)’로 대체하여 번역했다는 점, ‘처갓집’은 아예 삭제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족을 가리키는 용어 중 일부가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내 쪽 가족에 대한 호칭은 ‘처가, 처갓집’, ‘치남’, ‘치제’ 등으로 낮춰 부르지만, 남편 쪽은 반대로 ‘시댁’, ‘도련님’ 등으로 높여 부르는 것을 들 수 있다.<sup>15)</sup>

15) 오늘날 ‘처가’와 ‘시댁’이라는 용어를 여성 비하용으로 또는 남성 존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관습적인 호칭과 용어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서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습적인 표현은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TT2의 역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가’와 ‘처갓집’을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대체와 삭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형제’의 경우, <예문 11>에서와 마찬가지로 TT2 역자는 일관된 방식으로 ‘子女’라고 번역했다. 반대로 TT1 역자는 여성어 번역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은 듯 보인다. 러시아어 번역의 경우, ‘처가’를 뜻하는 ‘дом родителей жены(아내 부모의 집)’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TT2와 마찬가지로 ‘처가’와 ‘처갓집’을 살리지 않고 ‘부모의 집’으로 번역하였다.

<예문 14>

ST: 처형이 결혼 전부터 운영해온 화장품가게의 수입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였다. 그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점포를 세 배로 넓혔고, 출산 후에는 밤에만 잠깐씩 들러 가게를 운영해왔다. (p. 44)

TT1: 这是大姨子用结婚前就开始经营的化妆品店挣到的钱买的公寓。她一直用心经营她的店面，如今铺子的面积已经扩大到了原来的三倍。生完孩子后，她虽然只能抽出一点时间，但也每晚都会抽空到店里照看。(p. 40)

TT2: 大姨子从结婚前开始经营化妆品店，这套公寓完全是靠她的收入买下的。直到临盆前，店面已经扩大到了原来的三倍。生完孩子后，她只能每晚抽空到店里照看一下生意。(p. 33)

TT3: Эту квартиру сестра моей жены приобрела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она ещё до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свояче ница втрое увеличила торговую площадь, а после появлени на всет сына лишь по вечерам приходила в свой магазинчик. (p. 63)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만삭’은 ‘달이 차서 배가 몹시 부름’ 또는 ‘아이 낳을 달이 다 참’을 의미하는데, 중국어 번역본 TT1에서는 ‘만삭’을 아예 번역하지 않고 ‘출산’만 ‘生孩子(아이를 낳다)’로 번역하였다. TT1 역자가 의도적으로 ‘만삭’ 번역을 삭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삭’을 번역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중국어 번역문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TT2는 ‘만삭’과 ‘출산’을 누락 없이 모두 번역했다.

번역 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국어 원문의 ‘출산’을 중국어로 ‘分娩(분만)’이라고 옮길 수도 있겠지만, 명사를 동사로 치환(transposition)하여 ‘生孩子(아이를 낳다)’라고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 단어의 의미는 그대로 두고 품사를 바꾸는 ‘치환’ 전략(Munday et al., 2022/2023, p. 146)을 구사하였다.

러시아어 번역본은 ‘만삭이 될 때까지’를 ‘до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아이가 출생하기 전까지)’로, ‘출산’은 ‘появление на свет сына(아들의 출생)’로 표현하였다. 이 예문만 떼어 놓고 본다면 딸보다 아들의 출생을 강조한 번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소설 내용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처형이 아들을 낳았음을 알 수 있다.

TT3의 역자는 번역 과정에서 변조 전략<sup>16)</sup>을 사용했다. ‘(그녀는) 만삭이 될 때까지’를 ‘아이가 출생하기 전까지’로 번역한 부분에서는 ‘시점 바꾸기’의 변조 전략을, ‘출산’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아들의 출생’이라고 번역한 대목에서는 ‘명시적 변조’<sup>17)</sup>의 전략을 구사했다.

### 3.3 여성 묘사어

『채식주의자』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여성 묘사어는 <표 6>과 같다.

- 
- 16) 직역이나 치환을 통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도출했어도 도착어에서 부적절하다거나 어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변조의 사용이 정당화되는데, 변조를 사용하면 출발어 단어 표현의 의미와 시점이 바뀌게 된다. 메시지 층위에서의 변조는 다음과 같이 9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추상적-구체적/세부적-일반적, 명시적 변조/효과-원인, 전체-부분, 부분-다른 부분, 시점 바꾸기, 반의어 부정하기, 능동-수동, 시공간에서의 간격이나 한계에 관해 다시 생각하기, 상징 바꾸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Munday et al., 2022/2023, pp. 147-148).
- 17) ‘명시화’란 “원문의 목시적 정보가 번역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문법적 층위 의미론적 층위 화용론적 층위 담화적 층위에서 명시화가 필요할 수 있다(Munday et al., 2022/2023, p. 150). 담화의 층위에서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표층 결속성(cohesion)을 높이고자 암묵적인 정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명시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시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표 6  
『채식주의자』의 여성 묘사어

여성 묘사어	성품 묘사어	긍정 성품어	온화하다, 유순하다
		부정 성품어	새침하다
	외모 묘사어	부분 외모어	가냘프다, 가름하다, 몸매, 카랑카랑하다, (기슴이) 볼품없다.
		전체 외모어	못생기다, 백치스럽다, 수수하다, 예쁘다, 요염하다, 우아하다
	행동 묘사어	긍정 행동어	사근사근하다, 세련되다, 화사하다, 야무지다, 여자답다, 조곤조곤하다
		부정 행동어	바가지를 긁다

본 절에서는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여성 묘사어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번역 전략을 분석하기로 한다.

<예문 15>

ST: 주기적으로 바가지를 긁어 요란한 부부싸움을 벌이곤 한다는 아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던 터였으므로 나는 감사히 여겼다. (p. 11)

TT1: 定期找碴儿引发一场世纪大战的女人们相比, 她的表现足以让我谢天谢地了。(p. 5)

TT2: 定期发牢骚、找碴儿吵架的女人, 我对这样的妻子简直感激不尽。(p. 3)

TT3: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илит мужа и устраивает крикливые семейные разборки: очень уж меня утомляют такие женщины. (p. 10)

관용구 ‘바가지(를) 긁다’는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불평과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중국어 TT1에서는 ‘找碴儿(트집을 잡다)’로 번역되어 한국어 원문 전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TT2에서는 ‘发牢骚(불평하다, 투덜거리다, 푸념을 늘어놓는다)’와 ‘找碴儿(트집을 잡다)’을 중첩해 ‘바가지를 긁다’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프랑스어로 ‘등가’를 의미하는 ‘에키발랑스(équivalence)<sup>18)</sup>’ 또는 ‘관용표현 번역’ 전략에 해당한다. 에키발랑스는 관용구나 속담을 번역할

때 매우 유용한데 똑같은 상황 또는 표현을 두고 언어마다 서로 다른 구조와 문체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Munday et al., 2022/2023, p. 148).

러시아어 번역본을 보면 ‘пилить(귀찮게 잔소리하다, 괴롭히다, 바가지 굽다, 잔소리하여 괴롭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한국어 관용구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했다. 비록 짧은 한 단어지만 단어 차원에서 원문의 ‘바가지를 굽다’라는 관용구와 완전한 등가를 이루기 때문에 기존 등가어를 사용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6>

ST: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p. 9)

TT1: 她脚踏着款式最简单的黑色皮鞋, 走到了我的桌前, 那不紧不慢的样子, 既不强壮高大, 也算不上弱不禁风。(p. 4)

TT2: 她踩着款式极简的黑皮鞋, 不紧不慢地迈着平稳的步伐朝我所在的餐桌走了过来。【Ø】(p. 2)

TT3: Она подошла ко мне, ожидавшему ее за столиком в кафе, в черных туфлях самой простой модели. Подошла не быстрой и не медленной, не смелой и не тихой походкой. (p. 7)

여성 묘사어 ‘가냘프다’는 주로 여성의 몸이나 팔다리 따위가 몹시 가늘고 연약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형용사이다. 중국어 TT1에서는 ‘弱不禁风(몸이 약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것 같다)’이라는 사자구로 번역되어 중립적인 뉘앙스를 전달한다. 그러나 TT2에서는 ‘가냘프다’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여자라면 모름지기 여성스러워야 하고 가냘프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한 일환으로 TT2 역자가 일부러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어 번역본에서 ‘не тихой походкой(가냘프지 않은 걸음걸이로)’는

18) 여기서 말하는 에키발랑스와 번역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등가(equivalence)’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에키발랑스는 ‘관용표현 번역’으로, 학술어 ‘등가’는 단어 차원에서의 등가, 텍스트 차원에서의 등가, 효과의 등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Munday et al., 2022/2023, p. 148).

한국어 원문과 같이 ‘형용사 + 명사’의 결합으로 표현되었으나, 여성의 외모를 묘사하는 ‘가냘프다’라는 형용사를 ‘тихий(조용한, 느릿한)’의 의미를 지닌 중립적인 형용사 표현으로 대체하여 번역하였다.

<예문 17>

ST: 예쁘다거나, 총명하다거나, 눈에 띄게 요염하다거나, 부유한 집안의 따님이라거나 하는 여자들은 애초부터 나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p. 10)

TT1: 那些被冠以美丽可爱、聪明伶俐、性感妖艳、豪门公主等字眼的女孩子们，在我的心目中，一直都是不合适的。(p. 4)

TT2: 从一开始，那些用漂亮、聪明、妖艳和富家千金来形容的女子，只会让我感到不自在。(p. 3)

TT3: Те, кого называли красивыми, или умными, или вызывающе сексапильными, или дочери богатого папеньки,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ставлялись мне существами, с кем не оберешься хлопот, не более того. (p. 9)

여성의 외모 묘사어인 ‘예쁘다’와 ‘요염하다’는 중국어 TT1에서 ‘美丽可爱(예쁘고 사랑스럽다)’, ‘性感妖艳(섹시하고 요염하다)’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원문에는 없는 ‘사랑스럽다’와 ‘섹시하다’를 첨가하는 전략과 중국인의 언어사용에 부합하는 사자구 번역 전략을 혼용했다는 것이 TT1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 TT2는 원문에 충실하게 ‘漂亮(예쁘다)’, ‘妖艳(요염하다)’으로 직역했다.

러시아어의 번역본의 경우, 등가어 ‘красивый(아름답다, 예쁘다)’와 ‘вызывающе сексапильный(요염하게 섹시하다)’로 처리하여 원문 의미 전달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부사 ‘вызывающе’는 ‘요염하게’로 번역할 수 있으므로 ‘выглядеть вызывающе(요염하게 보이다)’ 또는 ‘вести себя слишком вызывающе(지나치게 요염하게 행동하다)’라는 동사구 표현으로 치환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TT3에서는 красивый(예쁘다), умный(총명하다) 등 형용사와 호응을 맞춰야 하므로 동사나 동사구를 사용하는 대신 형용사 ‘сексапильный(섹시하다)’를 첨가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문 18>

ST: 볼품없는 그녀의 가슴에 노브라란 사실 어울리지도 않았다. (p. 12)

TT1: 其实, 对于几乎可以用“太平公主”来形容的老婆来说, 不带文胸是相当不合适的事情。(pp. 5-6)

TT2: Ø

TT3: Пышной грудью она похвастаться не могла, и, по правде, стиль 《no bra》 совсем ей не шел. (p. 11)

<예문 18>은 ‘볼품없는 가슴’을 가진 아내 ‘영혜’가 노브라 상태로 외출하는 것을 보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어에서 ‘볼품없다’의 대응역으로 ‘不起眼’, ‘破烂不堪’, ‘不成样子’, ‘难看’ 등을 찾을 수 있지만 모두 직설적인 데다 <예문 18>의 한국어 원문의 뜻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TT1에서 중국어 번역가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 ‘太平公主(가슴이 평평한 여자, 절벽녀)’를 선택해 한국어 원문의 의미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 사실 ‘太平公主’는 당나라 고종과 측천무후 사이에 태어난 딸 ‘태평공주’를 가리킨다. 그러나 ‘태평하다’와 ‘평평하다’의 중국어 발음이 같으므로 ‘언어유희’를 활용한 번역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TT2의 번역가는 아예 <예문 18>의 한국어 원문을 통째로 삭제하여 ‘볼품없는 가슴’과 ‘브라’ 등 여성 대상어를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 러시아어의 경우 ‘볼품없는 가슴’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пышной грудью она похвастаться не могла(뽐낼 수 있는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완곡하게 번역하여 메시지 층위에서의 변조를 통한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다.

TT1의 역자는 남성, TT2와 TT3의 역자는 모두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작품이지만 남성 역자는 있는 그대로 여성어 번역을 살려냈다면, 여성 역자 두 명은 삭제 전략 또는 변조 전략을 택했다. 역자의 선택일 수도 있고 출판사의 방침일 수도 있겠지만, 남성 역자와 여성 역자의 번역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예문 19>

ST: 적당히 살이 붙은 처형의 몸매, 사근사근한 말씨, 커다랗게 쌍꺼풀진 눈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잃고 살아왔을지 모를 많은 것들을 아쉬워했다. (p. 44)

TT1:这个女人有丰腴的身材、和蔼可亲的语气、双眼皮的大眼睛，望着她我在心里觉得惋惜，那些人生中默默流失而自己未曾察觉到的东西，真是可惜。(p. 41)

TT2:望着大姨子丰腴的身材和双眼皮的大眼睛，听着她和和蔼可亲的口吻，我不禁为人生里流逝的且不曾察觉到的很多东西感到很遗憾。(p. 33)

TT3: Глядя на 【 Ø 】 тело своими глазами, слушая ее мягкий голос, я с сожалением подумал: 《Как много, должно быть, я упустил в своей жизни》. (p. 64)

<예문 20>

ST: 그녀는 새침한 애인처럼 반쯤 웃었다. (p. 94)

TT1: 她像一个爱装蒜的女朋友那样冲他微微一笑。(p. 93)

TT2: 她跟做作的女朋友一样，朝他微微一笑。(p. 77)

TT3: Она чуть-чуть улыбнулась, как воспитанная в строгих правилах девушка, завязавшая любов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молодым человеком. (p. 137)

<예문 19>를 살펴보면, ‘살이 붙은 몸매’를 중국어 번역본의 경우 TT1과 TT2 모두에서 ‘丰腴的身材(풍만한 몸매)’로 번역했고 ‘사근사근하다’라는 형용사도 모두 ‘和蔼可亲’이라는 사자구로 번역해 의미 전달에 충실했다. 러시아어 TT3에서는 ‘살이 붙은 몸매’에서 ‘살이 붙은’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한 채 그저 한 단어 ‘тело(몸)’로 번역했고, ‘사근사근하다’를 ‘мягкий(부드럽다, 우아하다, 약하다)’로 번역했는데 원문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예문 20>의 경우, 한국어 원문에서 ‘새침하다’는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중국어에도 ‘새침하다’의 대응어로 ‘做作’, ‘装相’, ‘妆模作样’, ‘装蒜’, ‘装样’, ‘冷漠’, ‘高冷’ 등 다양한 어휘가 존재하는데 TT1과 TT2는 각각 ‘装蒜’과 ‘做作’를 선택했다.

‘새침하다’에 대한 한국어-러시아어 학습사전(국립국어원)의 뜻을 보면 ‘Обладающий немного сдержанным характером или поведением, словно безразличны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ругим(남에게 관심이 없는 듯 성격이나 행동이 조금 차가운 데가 있다)’라고 나와 있다. 1대1 대응역으로는 ‘холодный(차갑다, 쌀쌀맞다)’, ‘равнодушный(무관심하다, 덤덤하다, 무심하다, 냉담하다)’, ‘сдержанный(침착하다, 새침하다, 감정을 억제하다)’, ‘хладнокровный(냉정하다, 태연하다, 차갑다, 냉철하다)’ 등이 있다. 상술한 여러 대응역 가운데서도 충분히 원문 속 ‘새침하다’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번역가가 TT3에서 원문에 없는 의미를 첨가 또는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자란 여자가 젊은 남자와 연애하는 것처럼’이라고 번역한 결과 한국어의 ‘새침하다’와는 거리가 멀어져 오히려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종합해 보면, 중국어 번역본의 경우 남녀 역자를 불문하고 모두 여성 부정 묘사어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TT1과 TT2에서 역자는 여러 가지 대응역 중에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번역하거나 중국 독자들에게 친숙한 사자구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원문의 여성 묘사어를 충실하게 번역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TT3의 역자는 <예문 19>와 <예문 20>에 등장한 여성 부정 묘사어를 모두 일관되게 삭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민현식(1995, pp. 30-32)의 여성 외모 묘사어와 여성 성품 묘사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살이 붙다’와 ‘새침하다’는 부정 외모 묘사어와 부정 성품 묘사어에 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역자는 미적 기준에 치중하여 여성의 몸매를 수식하는 부정 외모 묘사어와 가식적이고 내숭을 떠는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부정 성품 묘사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등장한 여성어를 중심으로 20개의 예시를 통해 중국어와 러시아어 번역 전략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원천 텍스트의 여성어와 등가를 이루는 표현이나

사전적 정의가 목표 문화권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여성어를 포함한 문화용어를 옮길 때 역자의 개입이나 중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예시를 통해 나타났듯이 역자는 문화적 중재자로서 언어 특성에 따라 기술, 기존 등가어, 대체, 변조, 삭제, 언어유희, 일반화, 차용, 첨가, 치환, 확대 등 다양한 번역 전략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한 중 번역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내’, ‘집사람’, ‘처녀’, ‘볼품없는 가슴’ 등의 한국 여성 대상어의 경우, 중국어에 1대1 대응역과 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개념이 분명 존재하지만, 역자는 해당 용어의 기본적인 뜻에 기초하여 TT 텍스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역자는 기존 등가어, 대체, 삭제, 언어유희 등 번역 전략을 구사하였다. 둘째, 중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자의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한 고유한 번역 전략, 즉 ‘사자구’의 활용이 눈에 띈다. ‘사자구’를 사용한 번역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칫 지루하고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부유한 집안의 딸’, ‘가냘프다’, ‘예쁘다’, ‘요염하다’ 등 여성 대상어가 ‘내용미’와 ‘형식미’를 모두 갖춘 번역 결과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셋째, 남성만을 지칭하는 어휘에 여성의 의미를 포함시켜 번역하였다. 이로써 ‘남존여비’ 차별의 잔재로 인식되고 있는 ‘자식’과 ‘형제’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칭하는 어휘를 선별하여 번역한 결과 ‘남존여비’의 의미가 희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 러 번역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어 원문에 비해 중립적인 용어, 남성과 여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용어, 직설적인 표현 대신 우회하여 표현하는 방법과 대체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일부 여성어(‘부유한 집안의 따님’이나 ‘중군위안부’ 등)를 제외하고는 ‘남존여비’ 차별의 뉘앙스나 거부장적인 느낌을 중화시켰다. 둘째, 한국어로는 한 단어지만 러시아어로 번역할 경우, 두 단어나 세 단어, 심지어 그 이상의 단어 조합을 사용해야만 완전하고 올바른 의미적 등가성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러시아어 번역문은 지나치게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역자가 상황에 따라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만 사용하는 번역 전략을 취한 점이 흥미롭다. 러시아어의 이

러한 언어적 조어적 특징으로 인한 번역 결과물은 ‘사자구’ 번역 전략을 활용하여 문장이 간결해지는 중국어 번역 결과물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한 중, 한 러 번역본을 막론하고 남녀 역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동일한 작품에 대한 다양한 번역본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또 번역 전체를 살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 역자 간 차이를 단정 짓거나 깊이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여성어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예문을 분석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음을 기술한다. TT1(남성)의 경우 삭제된 부분이 없이 대체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으나 TT2(여성)와 TT3(여성)은 삭제 기술 대체 전략을 더 많이 구사했다. 여성 역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성어 번역에 대한 남녀 역자 사이에 시각 차이가 존재함은 분명해 보인다. 역자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또 어떤 의도로 번역 작업을 했는지에 따라 어휘 선정이나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2장에서 여성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봤듯이, 성별어에 관해 일본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한 일 여성어 또는 남성어의 특징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영어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는 ‘여성이나 남성의 언어 사용 특징’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 대상어에 관한 번역학 연구가 미미한 한 중, 한 러 세 언어 쌍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작품을 남성 역자와 여성 역자가 번역했을 때 여성어의 번역 전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휘 중심의 여성 대상어만 분석하고 여성 발화어와 관련된 분석은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분석 대상의 범위를 한 작품으로만 국한시켰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여성 발화어, 남성어 등의 번역 문제를 포함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이상윤. (역). (2018). Вегетарианка [The Vegetarian].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한강. (2007). 채식주의자. 창비.  
千日. (역). (2013). 素食主义者 [The Vegetarian]. 重庆出版社.  
胡椒筒. (역). (2021). 素食者 [The Vegetarian]. 四川文艺出版社.

### <2차 자료>

- 구현정. (1995). 남성형-여성형 어휘의 형태와 의미 연구. 국어학, 25, 99-135.  
김동미. (2007). 문학작품의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화용 통사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37-60.  
김동미. (2009).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번역학연구, 10(1), 7-32.  
김동미. (2010). 문학작품 영한번역문에 나타나는 여성 문체 연구 -한자어 사용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73-95.  
김미진. (2015). 제주도 방언의 여성 발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김선희. (1991). 여성어에 대한 고찰. 목원대학논문집, 19, 111-127.  
김순자. (2007). 소설 ‘노르웨이 숲’에 나타난 여성어와 번역상의 특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김영신, 최병근. (2023).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여성어의 영어번역과 러시아어번역 비교연구. 통번역교육연구, 21(1), 131-148.  
김옥동. (2012). 속담의 성차별과 젠더 번역. 통번역학연구, 16(4), 109-127.  
김정환. (2024. 10. 12.). ‘채식주의자’ 번역 데보라 스미스 “번역이란 아슬아슬한 줄타기.” 뉴스1. <https://tuney.kr/krF09P>  
김재민. (2024). 대중 영화 번역 자막의 젠더 차별 언어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25(1), 89-122.  
김진우. (1985). 언어: 그 이론과 응용. 탐출판사.  
김진우. (2017). 언어: 그 이론과 응용(제3판). 한국문화사.

- 김혜림, 신지선, 조영주. (2014).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김혜림. (2019). 지난 20년간 ‘문화용어’에 대한 국내 통번역연구 고찰. 통번역학연구, 23(4), 81-111.
- 모이. (2015). 한 중 남녀의 성별 발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대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민현식. (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34, 1-64.
- 박창원. (1999).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 서유경. (2012). 한국 여성어 번역과 문화 간극 - 김주영의 『천둥소리』 러시아어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2), 39-67.
- 서정범. (1969). 여성에 관한 명칭고. 아시아 여성연구, 8, 77-108.
- 서진숙. (2010). 국어 여성어 변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유창돈. (1966). 여성어의 역사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5, 35-72.
- 윤혜인. (2019). 『채식주의자』 프랑스어 및 영어 번역본 온라인 독자 리뷰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상빈. (2017). 광고와 젠더 번역: 수입자동차 인쇄광고의 남성타깃 번역전략. 통번역학연구, 21(2), 85-108.
- 이상빈. (2023).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개정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 이상원. (2012). 번역에서 여성어는 존재하는가. 통번역학연구, 16(2), 1-18.
- 이석규, 김선희. (1992).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어문학연구, 2(1), 35-74.
- 이아영, 최은실. (2023). 한중 번역과 한영 번역에 나타나는 고맥락과 저맥락 양상 비교 -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64, 43-68.
- 이영훈. (2022). 단편 「채식주의자」 프랑스어 번역의 번역비평 시론 - 베르만의 번역분석론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6(1), 107-138.
- 이재운. (2021. 4. 28.). [이재운의 말글 바꾸기] ④처와 부인(婦人).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337277>
- 이현주. (2020). 중국어의 사자구(四字格) - 하나의 번역방법으로서 분류 가능한 사자구. 중어중문학, 82, 234-254.

- 이혜영. (2006). 한 일 양언어의 젠더표현의 대조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호재, 사지원, 김소민. (2024. 10. 15.). 타밀어 등 31개 언어로 번역된 ‘채식주의자’, 세계 독자 공감 넓혀.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41015/130217200/1>
- 임홍빈. (1993). 국어의 여성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편).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pp. 819-829). 문학과 지성사.
- 장해선. (2010). 일본 소설에 나타나는 ‘남성어’ 번역 전략에 대한 고찰. 일본어문학, 49, 317-342.
- 조성원. (2004). 셰익스피어 영상번역과 젠더. 비교문학, 32, 31-50.
- 조승연. (2023).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여성어 남성어 비교 연구: 한일 번역본 『82년생 김지영』의 문말(文末)표현을 중심으로. 언어학, 13(1), 45-63.
- 주지연. (2008). 한국어 여성 발화어 연구 방법론 재검토. 한국방언학회, 8, 197-216.
- 채춘옥. (2009). 연변지역의 여성어와 남성어에 대한 고찰 -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7(2), 115-136.
- 홍선의. (2014). 러시아어에서 남성어/여성어의 변별적 특성 - 대중매체 언어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26(1), 83-108.
- 王文斌, 高静. (2019). 论汉语四字格成语的块状性和离散性[On the Chunkiness and Discreteness of Chinese Four-character Idioms]. 北京第二外国语学院学报, 总第268期, 3-19.
- Lakoff, R. (1991). 여자는 왜 여자답게 말해야 하는가 (강주현, 번역). 고려원. (Original work published 1975)
- Munday, J., Ramos Pinto, S., & Blakesley, J. (2023).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남원준, 이형진, 공역).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Original work published 2022)

<인터넷 검색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바이두 백과사전. <https://baike.baidu.com>

첸이츠바 중 러 사전. <http://www.igimu.com>

## Translation strategies in the Chinese and Russian versions of Han Kang's *Chaesikjuuija*(The Vegetarian): A focus on women's language

**Meishan Zheng**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Hyerim Kim** (corresponding author, hyerim@ewha.ac.kr)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lation of women's language in Han Kang's novel *Chaesikjuuija* (literally, "The Vegetarian") into Chinese and Russian. While Korean and Chinese share historical and cultural similarities, such as Confucian traditions and patriarchal social systems, their linguistic structures differ significantly. Russian, as a member of an entirely different language family, diverges even further from Korean. Although Korean lacks explicit grammatical markers for feminine and masculine language, it does feature gender-based linguistic distinctions. This study compares *Chaesikjuuija* with its two Chinese translations and one Russian translation, exploring how the translators used strategies such as addition, deletion, description, modulation, and amplification to convey women's language. In addition, the study reveals the influence of male and female translators' perspectives on the translations. By highlighting the cultural distance reflected in the translation of women's language, the study underscores the role of translator intervention and the importance of gender-related linguistic analysis in translation research.

**Keywords:** Russian translation; translation strategies; Women's language; Chinese translation; *Chaesikjuuija*

**키워드:** 러시아어 번역, 번역 전략, 여성어, 중국어 번역, 채식주의자

정미선(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생

zms613@ewha.ac.kr

김혜림(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hyerim@ewha.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11월 12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14일